제 5 장 칸트의 철학 I

1. 칸트는 과학[=진], 윤리[=선], 그리고 예술[=미]의 영역을 구분한다.

1) 우리는 동일한 대상을 세 가지의 관심, 즉 이론적, 윤리적, 그리고 미적 관심으로 볼 수 있다.

◇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최소한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사변적] 관심, 둘째는 윤리적[=실천적] 관심,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미적인[=무관심한] 관심이다. 예를 들어 어느 아름다운 여고생이 건물에서 투신하여 낙엽이 덮인 아스팔트에 피가 핑크빛을 띠며 번져갔다. 이 경우 우리는 만유인력에 대해, 여고생의 자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핑크빛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 실천적 관심은 공동체에 살면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은 이론적 관심과 무관심한 관심이다. 예를 들어 해부학은 인간을 이론적으로 보는 연습 중 하나이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생각해보자. 다음으로 누드화는 인간을 무관(無關)하게 보는 연습 중 하나이다. 이성의 나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예술가를 생각해보자.
◇ 칸트의 세 가지 관심은 세 종류의 선글라스에 비유될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선글라스이든 벗어야 할 때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정신이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로마를 불태우고 아름다운 시를 읊었던 네로 황제의 잔혹함은 무관심한 관심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결코 벗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것 아닌가? (미적인 관심과 윤리적 관심의 혼동)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실수는 원자력과 관련된 이론적 관심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벗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것 아닌가? (이론적 관심과 윤리적 관심의 혼동) 노출 수위와 관련하여 예술작품들을 반윤리적이라고 비방하는 영화 검열자들의 청교도적 망상은 실천적 관심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벗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겼던 것 아닌가? (미적인 관심과 윤리적 관심의 혼동)

2) 「순수이성비판」은 근대과학의 활동을 정당화하며, 독단적 형이상학을 비판한다.

◇ 칸트는 선천적 종합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근대과학의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 분석명제와 관련된 것이 분석판단, 종합명제와 관련된 것이 종합판단이다. '선천적 종합판단'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판단을 의미한다. '선천적 종합판단'에 의해 제안된 명제들은 대부분 과학이나 수학 이론의 명제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선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이다"라는 수학의 명제를 보자. '직선'이란 개념에는 '점'이나 '최단'이란 개념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명제는 경험과는 무관하지만 분명 우리의 지식을 확장한다. 마치 '강신주는 철학을 좋아한다.'라는 종합판단처럼 말이다.
◇ 감성, 오성, 그리고 이성이란 칸트의 도식은 플라톤의 질료, 형상 그리고 제작자라는 도식을 내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감성은 어떤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수동적 기능이다. 그래서 감성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한다. 반면 오성은 온갖 범주들로 감성에 의해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성에 주어진 것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성은 우리의 경험, 즉 현상을 넘어선 것을 오성의 범주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다. 이것은 이미 감성과 오성을 거친 것이다. 우리는 그 여인이 실연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작용이다.
◇ 우리는 물자체(物自體, Das Ding an sich, Thing itself)는 모르고 현상만을 안다.
→ 인간이 보는 것과 뱀이 보는 세계는 같은 세계가 아니다. 뱀은 자신이 가진 조건에 국한되어 보는데,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감성과 오성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칸트의 물자체에 대해서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과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반응이 흥미롭다. 헤겔은 물자체를 '지금 모르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것은 그가 나중에 완전히 실현될 절대정신이란 입장에서 물자체를 사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과는 달리 니체는 물자체란 쓸데없는 추상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관점주의(perspectivism)를 주장한다.

◇ 인간의 오류는 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잘못된 추론에 있다.
→ 칸트 이전에 모든 잘못은 감각이나 육체에 돌렸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의 오류를 이성의 추론 작용에서 찾았다. 이성은 세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원인을 추론했고, 그것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마지막에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전도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은 감성과 오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칸트가 신을 인정하는 이유는,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신이 있다는 생각이 윤리적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윤리적 생활을 하느라 현실에서 힘든 사람은 내세에 신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고 믿으면 힘이 될 것이다.